

전북 미래 성장방안 논의의 장 열려

전북대 상대·전북연·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라북도 경제발전 전략과 전북 뭉 찾기' 세미나 개최

4차 산업혁명과 조기대선으로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전북 미래 성장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전북대학교에서 열렸다.

전북대 상과대학과 전북연구원, 전북도가 2월 21일 전북대 상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라북도 경제발전 전략과 전북 뭉 찾기'라는 주제로 산·학·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것.

이날 세미나에서는 채수한 KAIST 교수를 비롯 전북대 상대 교수진들이 기초발제와 각각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북의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1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대 영영숙 교수(경제학과)는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의 여건을 감안할 때 4차 산업혁명과 농업관련 가치사슬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박상준 교수(경영학과)는 "전북 빅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인력양성과 창업 인프라 구축, 장단기 빅데이터 산업 육성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주제 마지막 발표자인 최남석 교수(무역학과)는 "한미 FTA 재협상과 미·중 무역전쟁은 전북지역 자동차, 기계, 섬유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며 "수출국과 납품선, 수출 상품 등 다변화 전략을 제시했다."

2번째 주제인 '전북 뭉 찾기'에서 나중우 전북문화원연합회장은 "농업사회에서 전북은 자주성을 정체성으로 지켜왔지만



4차 산업혁명과 조기대선으로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전북 미래 성장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전북대학교에서 열렸다. 전북대 상과대학과 전북연구원, 전북도가 2월 21일 전북대 상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라북도 경제발전 전략과 전북 뭉 찾기'라는 주제로 산·학·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며 "원래의 정체성을 찾아 정치권과 경제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전북연구원 최은규 부연구위원은 "세계적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근거로 격차 바로잡기,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다양성 증대를 제시했다"며 "전북 뭉 찾기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잘못된 과거에 대한 격차 바로잡기"라고 밝혔다.

이남호 총장은 "전북 발전에 대한 아젠다 및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공정한

전북 뭉 찾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현직 전북연구원장은 "전북 뭉 찾기는 국가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 과거 불이익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식과 실천이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 국민의당 '노크'

박근혜 탄핵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 열기가 뜨거워 시점에 전북지역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면서 각 지역 입후보 예정자들로 국민의당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당에 문의가 폭주하는 이유는 이번에 예정된 재보궐 선거 지역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및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입후보 예정자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경선 룰을 정해 혼선을 피하고 선거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진숙 사무처장은 "그간 선거 과정을 비롯해 검증 못한 인물이 당선되면서 불거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올바른 입후보자를 내세워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의회 문건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 점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1일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해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오는 6월 개최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완수 위원장은 "대회에 참가하는 입원 및 선수단의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경비, 보안 및 교통대책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태권도 중추국의 위상에 걸맞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이번 대회가 170개국 1,900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정유라 특검 조사 무산될 듯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 조사가 이뤄지지 어렵다고 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씨는 최씨를 등에 업고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덴마크에서 체포돼 현지 사법당국에서 송환과 관련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씨 브리핑을 통해 "정씨의 범죄인 인도청구 소환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아마도 결론이 날 경우 내일 또 구금기간 재연장 여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인인도청구 송환 결정이 나오면 정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속한 송환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안다"며 "만에 하나 정씨가 조기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씨가 언제 송환될 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특검, 이재용 기소 무렵 남은 피의자 '일괄처리'

최순실 '뇌물죄' 추가 기소 삼성그룹 임원 신병처리 결정 김영재 불구속-안봉근 재소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다른 피의자들 신병처리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발부여가 결정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이 신속히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신병처리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회장 기소 무렵에 (신병처리 여부) 모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개월동안 입건한 피의자

신병처리 방향을 대부분 결정했다.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고, 이 날은 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주요 수사 대상 신병처리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는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그룹 임원과 비선진료 의혹에 관련된 김영재(57) 원장,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등이 남았다.

이 외에도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비선진료 의혹과 연관계 전달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남았다.

특검팀은 김 원장의 경우 불구속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안 전 비서관은 피의자 전환을 아직 하지 않은 채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 기소에 맞춰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뇌물죄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삼성그룹 임원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자료 후 공소유지에 대해 이 특검보는 "공소유지도 수사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각 사건이 중요하고 기록이 방대하며 공판기일도 집중 운영이 되는 만큼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배려규정이 없다"며 "특검법 개정안에 원활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원칙과 기준은 동일하다"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곧 대면조사 관련 결과를 이야기하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8일 첫 재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8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뉴스

최순실, 현재 불출석 사유서 제출

22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관계자는 21일 "22일 증언하기로 예정된 최씨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출석한 증인신문에서 알고 있는 점을 모두 진술해 더 이상 답할 게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느낀다는
행복한 교육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곡초 교사)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